카네순꽃에빛나는36名

어머니는나라의基盤

8日昌慶苑서慰安잔치盛大

八일 상오十一시 창경원에서는 어머니날을 기념하는식전이 성대하게벌어졌다 이자리에서는 아들딸을 十명이상씩낳은 十八명의 어머니와 三명이상의 아들을 군문에보낸 十八명의 어머니에대한 표창도있었는데 제七회째되는 이날식전에는 이대통령부인도 참석하는가하면 내한중인 「밴·프리트」장군부인도참석하고 민의원의장과 서울시장도 자리를같이하였다

식은 국민 의례에 이어 이대통령부인에 대한 꽃다발증정과 표창장및 부상수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김서울시장의 「어머니는 나라의기반이요 모체이며 어머니의거룩한 희생적인 사랑이 나라의장래를 좌우한다」는 요지의 기념사가있었다 계속해서 어머니를위로하는뜻으로 이화여고생들이 부르는「어머니노래」와 치하사 낭사의 순서로 식은 진행되어 가슴에 꽂고된「카네이숀」내지는 표지를 달고 재색우거져가는 고궁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거행된 이식전은 그대로 전국에있는 어머니의 믿음을느끼고 기념하는식전이었다 한편 이날표창받은 어머니들은 다음과 같다

(사진상은 표창을받는 어머니 하는 이대통령부인이 꽃다발을 받고있는광경)

◇다산어머니
▲안금순(四八)五남六녀 ▲최경선(四一)九남二녀 ▲장수동(四九)五남六녀 ▲이신순(四五)五남五녀 ▲이홍진(四三)六남三녀 ▲김순이(四五)七남五녀 ▲변규희(五四)九남二녀 ▲장순애(四一)四남六녀 ▲유주정(五三)四남七녀 ▲조순업(五三)八남三녀 ▲임순임(五二)四남六녀 ▲최간난(四八)十一남매 ▲한아지(四七)十남매 ▲김순자(四七)六남五녀 ▲최영선(四七)八남一녀 ▲김한나(六三)四남七녀 ▲윤갑순(四三)四남六녀

◇출정군인어머니
▲정영아(五?)출정자四명 ▲김주선(五四)三명 ▲이간단(四九)四명 ▲노학실(五九)三명 ▲김부필(六四)三명 ▲박순이(五四)四명 ▲조기순(五二)四명 ▲함안이(五三)四명 ▲이봉금(四八)三명 ▲전금순(四七)三명 ▲손간난(六一)三명 ▲정유덕(六〇)三명 ▲김입분(四八)三명 ▲하향인(六一)三명 ▲양순이(五〇)二명 ▲박점순(五五)四명 ▲유연순(六〇)三명 ▲송월순(五一)三명

◇애국운동을한 어머니
▲이선신(七〇) ▲홍애시덕(六三) ▲황애덕(六三) ▲유각경(六五)

굶는兒童에粉乳

「유니셀」서四千噸「파운드」援助

八일 보건사회부당국에서 알려진바에의하면 오는九월이후 一년간에 분유四천만「파운드」는「유니세프」본부로부터 원조받게 되었다고 하며 동결정은 「유니세프」본부로부터 보건사회부당국에 통고하여왔다고하는데 오는八월말로 동분유원조에 대한 「유니세프」측과의 협정이 만료됨에앞서 동 당국에서는 지난번 동협정기한을 연장해 줄것을 「유니세프」본부에 요청한것이 이번에 승인된것이라고하며 동분유는 결식아동을 비롯하여 임산부 기타 난민들에게 계속 급식하게 될것이라고한다

地方短信

어린이날行事 中垈校서盛大

【西廣州】광주군송파(松坡)에있는 중대(中垈)국민학교에서는 지난五일 三十四회 어린이날을맞이하여 개교三十二주년기념과아울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위한 기념행사로 노래와 춤 연극등 다채로운「푸로」를가지고 다수관중이 모인가운데 학예회를개최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良兒表彰

【安養】시흥군(始興郡)에서는 어린이날을맞이하여 지난五일정오 군청회의실에서 내빈다수참석한가운데 우량아표창식을거행하였는데 경기도지사 군수 교육감등 각기관장으로부터 각기상장과 상품이수여되었는데 표창아는다음과같다 ▲李美雨氏三女숭연▲韓興氏二男국빈▲徐景熙氏二男중원▲卞相玉氏長女 순자▲鄭珠璐氏長女숙천 ▲崔昌祚氏四女순옥 ▲李鎭[illegible]氏二男친우

어린이運動會盛況

【高城】강원도 고성에서는 三十四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고성군 교육구청 주최로 군내 각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운동회를 간성국민학교광장에서 거행하였다 그리고 우량소년들에게 고성경찰서장 고성재(高聖在)씨가 표창장을 수여한뒤 어린이들의 운동회를열었는데 경찰서장으로부터 상을 받은 아동은 다음과같다 ▲杆城面上里 鄭鳳子▲巨律面 [illegible]元錫▲縣內面 黃[illegible]文

착한어린이表彰

【光山】지난五일 어린이날을맞이하여 평동면국민학교에서는 착한어린이표창식과 전교생을동원하여 체육회(體育會)를 유지와 학부형다수 운집리에성대히거행하였는데 표창장을 받은아동은 이충남(六年)군외十三명이었다

軍人이金一封 綠化에써달라고

【龍安】전국적으로 녹화운동이 계속되고있는 이때 전역군인이 자기호주머니를 털어 산림녹화사업에 써달라고 당지산림계에 금一봉을 희사한미담한토막이 있다 즉 당지무학산(舞鶴山)일대五十여정보에 달하는 면유림은 四十여명의 산림계원의 노력으로 호남지방에서 보기드문 모범산림으로 되어가고있는데 지난五일 논산 제二훈련소 교육대장 윤택중(尹宅重)대령이 동 산림계장 황대규(黃大奎)씨를 찾아와 계원들의 노고를 찬양하면서 녹화사업에 보태써달라고하며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금一만환을희사하였다는바 산림계원들은 물론 일반의 칭송이 자못높다

料金낸者도 通話를停止 高城郵遞局서

【高城】당지고성우체국에서는 지난四일 간성(杆城)읍내에 약三十대의전화를 읍민에게 가설하여 지방발전에 큰 역할을하고있었는데 최근 선거일자를 앞에두고 관민이모두 전화사용에 분망한때에 돌연 통화정지를단행하고있어 읍민의 비난을 받고있는데 통화정지의이유는 사용료를 납부치않는탓이라고하나 이에따라 요금완납자까지도 겸해서 통화가중지되고 있어 여론이비등하고있다

電信電話事務開始 安東과盈德間

【安東】六·二五전란으로 인하여 그동안 두절되었던 안동 영덕(安東盈德)간의 전신전화의 복구공사를 안동우체국에서 추진중이던바 금번 동공사가 완료되어 지난一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한다

安養幼稚開園

【安養】당지에는 어린이보육 기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천주교 안양교회(天主敎安養敎會)에서는 유치원을 설립하고 경기도당국에 인가를 신청중이던바 드디어 지난一일부인가를얻어 지난五일하오二시부터 동유치원교실에서 민의원 이영섭(李英燮)씨를 비롯하여 관민유지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이에대해 一백여명 원아(園兒)들에게 귀여운 예술제를보여주었다고하며 원장에 구천우(具天祐)신부(神父)다 한다

悲報에 눈물 民主黨政見發表서

【嶺東支社】지난五일 민주당대통령후보 신익희(申翼熙)씨의 별세비보가 전해지자 강릉(江陵)에서는 전개되고있던 선거전이 일시중지되었는데 이날마침 지방유세차 내강한 김상돈(金相敦) 김산(金山)양씨는 비통한 어조로 모여든 一천여명 군중에게 눈물로써 비보를전하자 모여든 남녀청중은 함께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한다

三間사리에子福만

열두男妹를 곱게 곱게 養育

多産어머니 金女史

한편 금년도「어머니날」에 제일 아이를 많이낳았기때문에 표창받은 김순이(金順伊=四五)여자는 일곱명의 아들과 다섯명의 딸을낳아서 한사람도 실수없이 곱게키워낸 어머니다 그는 서울시내 동대문구 이문동(里門洞)二九八번지에사는 김제흥씨의부인인데 연년이 남매를낳고또배가 불러서 근처사람들은 아이를 배는것이 분명하다고 수군거리고있다 서울교외에 자리잡고있는 그의집은 초가삼간을 넘게꾸민 농가였다 다산어머니인 김씨는 열두명의아이를 낳고 키우느라고 수고한탓인지 四十五세의 연세라고는생각할수없을만큼 주름잡힌 얼굴을하고있었다 「아홉번째 아들이름은 뭐라고하지요?」하고 묻는말에 「아홉째가?」하고는 한참생각하다가 「명확이라고해요」하고 대답하면서 웃는김씨였다 이어그는 二十一세때 맏아들을 낳았는데 군인이되어서 지금은 一등중사이고 二十二세에낳은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생 二十五세에 낳은것은 지금二十一세의 처녀이며 사위감을 골라야되겠다고말하고있다 다음또 다음으로 二년걸러서낳은 아들 딸들이 전부열두명이된것이다 六·二五사변중에는 이十二남매를 포탄과주렴속에서 겪우느라고 얼이빠져서 아이들 이름마저 얼른 생각나지않는다고 말하였다 김여사는 이어 같은동네에 자[illegible]는十九세된 총각이었던 재외남편과 결혼하던때를 회상하고 그때는十八세처녀였는데 아이를 많이낳고보니 가난한형편에 공부를 마음대로시키지못하는것이 한이다고말하면서 연세번째 애기를배였는지 모르겠다고 배를어루만지며 웃는것이었다 (사진은 김여사)

非人道的取扱"不可

檢察、各警察署에示達

衝突事件被檢者들

지난五일저녁 경무대관저앞에서 발생한 경찰과 해공선생유해호송군중사이에 벌어진 충돌사건 지휘수사중인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당국에서 검거한 피검자들에게 비인도적인 대접으로 취급한다는 말이 있음에 비추어 七일 상오 지테검사회의를 개최한후 이날하오부터 시내 각경찰서에 분산구속중인 피검자들의 심문조사하고 각기 담당경찰책임자들에게 「비인도적인 취급을금하라」고지시하는한편「식사대우와 면회등을 조심하라」고 지시하였다하며 그리고「검거인원중 정식구속영장을받고 계속취조중인 一백十명의 피의자들을 八일중으로 각경찰서 관할구역대로 취급(例Ⅱ 종로 서관할의자는 종로서에서취급)하도록하라」고 지시하였다한다

一線서도 어린이잔치

二軍團서三百餘孤兒慰問

지난五일 어린이날에는 일선에서도 어린이잔치가 열리었다 육군제二군단에서는 춘천(春川)에있는 각고아원 고아三백여명을 춘천중학 강당에 모아놓고 동군단군악대가 군악을 연주해주었으며 동연주회에서 과자와「카라멜」등 선물을받은 고아들은 과자를먹어가며 즐겁게 노래도하였다 (사진은 군악을듣는고아들)

拉致人士送還도交涉?

國際赤十字社代表두명來韓

韓日、相互抑留人交涉을推進

그동안 정부가「유엔」을 통하여 교섭하여오던 六·二五사변당시의 피납치인사 송환문제는 앞으로 민간인들에 의하여 국제적십자사에게 의뢰되어 교섭이 진행될것이라고한다 八일 외무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제적십자사의 대표두명이 九일상오 여의도공항착 서북항공편으로 내한하고 五일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라는데 이들의 내한목적은 일본「오오무라」(大村)수용소에 억류된 한국인과 부산(釜山)소재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고있는 평화선침범일본인들의 현황을 시찰하고 가능하면 양국정부가 쌍방억류인을 인도적으로 상호석방할것에 관하여 양국정부에 건의할것으로 전해지고있으나 외교소식통이 말한바에 의하면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미 피납치인사의 송환교섭을하는데 필요한 이들의 정확한 수(數)를 비롯한 기타의 자료를충분히제공하고있어 이기회에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민간인측에 의한 피납치인사의 송환은 교섭하게될것이 주목되고있는것이다 한편 교섭결과는 극히 주목되고있는것이다 한편 九일입경할 국제적십자사 대표는「윌리암·미체르」씨(瑞西) 그리고「유진·메위크」씨(瑞西)이라고한다

海公葬儀 國民葬으로

自由黨側에서意思를表示

자유당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대리인 이재학(李在鶴)씨는 八일 상오기자회견석상에서 고 신익희(申翼熙)씨의 장의문제에 대하여 「자유당으로서는 국민장으로할 의사를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재학씨는 지난五일밤에 발생한 경무대앞 충돌사건에 언급하여 「법에벗어난 행동으로서 일종의 폭동으로 인정치않을수없다」고 말하였다

葬儀方法討議 準備會議開催

김창숙(金昌淑) 방주혁(方周赫) 장건상(張建相) 서상일(徐相日) 곽상훈(郭尙勳)등 五씨는 八일상오 각정당 사회단체대표에 대해서 고해공신익희씨의 장의식에 관한 준비회합을 이날 하오六시부터 시내효자동에있는 고신씨자택에서 개최할것이라고 통지하였다 그런데 민주당측은 六일저녁에 고신씨의 장의를 오는十八일경 사회장(社會葬)으로 할것에 대체적인 합의를 본바있었던것이다

農林長官에게 糧配時期一任

國務會議決定

八일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어민수산사업비(漁民水産事業費)로 四억환을 방출하기로 의결하였다고한다 그리고 동국무회의에서는 각가(倂)군진용양곡은 농림장관이 필요한시기에 배급할수있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현장근무수당급여의건(現場勤務手當給與의件)을 통과시켰다는바 이에 해당되는 종업원은 체신부 교통부및 전매청의 현장종업원 전원이라고한다 그리고 이날 국무회의는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그리고 각도(各道)에 근로감독관설치규정을 통과시켰다고한다

列車트럭衝突 六名이死傷

七日釜山鎭서

지난七일 낮十二시반경 부산진구 우암역(牛岩驛)앞 횡단로에서는 질주중이던 열차와 국군공병대「트레이러」가 충돌하여 六명의 사상자를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날 부산진역을 출발한 임시화물열차(제五七二五)는 十五량의 화차를 연결하고 전기 시간에 우암(牛岩)역에서 五·八「키로」지점에위치한 횡단로를 통과할무렵 마침 국군 제二〇三八 공병대대 소속「트레이러」(운전수=二등중사 이명구 동승인=一등중사 한명조)가 횡단로를 통과하려다가 충돌하였는데 횡단로 일대의 변에는 민가가 밀집되어있어 전방이 잘보이지않아서 충돌직전七「메터」에서 열차가「트레이러」를발견하고 정거하였으나 그대로충돌하여「트레이러」는 약八「메터」가량이나 밀려가는바람에 결로연변에서 장사하고있던 사람들이 다음과같이 사망내지중경상을입었다한다

▲死者 손시만(五四=부산시문현동五통八반) 이원선(六六=女=부산시범일동六四三)

▲重傷者(瑞北病院入院中) 이만우(一등중사) 한명조(一등중사) 이순황(五九 男=부산시우암동一〇二)

▲輕傷者(即歸宅) 성명미상(女)

加擔學生은處罰?

大學長會議열고衝突事件檢討

文教部

八일하오二시 문교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에서 서울시내대학 학생과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五일하오 경무대앞에서일어난 충돌사건에 가담한 학생의 처벌방침과 앞으로의 학생정치운동참가에 대한 단속방침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내 대학학생과장회의는 문교부당국에의해서 황급히 소집된 것이다

15日은公休日

國務會議서決定

八일 국무회의에서는 五월十五일 정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결정하였다

記者連行遺憾

邊市警察局長 衝突事件에談

변(邊)서울시 경찰국장은 八일 상오十一시 출입기자단과 회견하고 지난五일 경무대앞 충돌사건당시 취재중이던 기자를 연행하여 二十四시간후에 석방한 사건에 대하여 「심히 유감된 일이다」고 전제하고나서 요지 다음과같이 설명하였다 「지난五일 동 사태하에 있어서는 누구나를 불문하고 용의자로 지목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취재기자를 용의자로 인정하여 연행하였던것이나 그후 二十四시간후에 석방시킨것은 연행자는 많고 심사관은 적기때문에 늦어진 것이었으며 二十四시간 후에 무혐의로 석방한 사실에대하여는 부득이한 처사인동시에 심히 유감된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五일 하오七시四十분경 합동통신사 기자 박남규(朴南圭)씨는 현장취재중 서울중부경찰서에 연행되어 六일 새벽一시경 서울 성북경찰서로 인계된다음 검찰 총장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서울성북경찰서장에게 즉시 석방하라는 지시가 있었건만 六일하오 六시(구금후二十四시간)에 이르러서야 무혐의로 석방되었던것이다

女人屍體에 銃傷세군데

七일저녁 九시四十五분경 서울시용산구 이촌동(二村洞)에있는 용산경찰서 북한강파출소동방五백「메터」지점에있는 한강제방에서는 세군데에 관통상을 입은 二十四, 五세가량되어보이는 여자시체가 발견되었다 감정결과 당시이미 사후 二시간을경과하였다는것이 판명되어 경찰에서는 즉시살인으로단정하고 시체의 신원과범인을 수사중에있다 八일 상오十一시현재까지 경찰에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경과를보면 시체가된 여자는 七일하오 七시경부터 시체로 발견된장소에서 [illegible] 같이앉아있었으며 범인이 먼저 총(아직종류는모름)으로써 「다리」를쏘아 여자가도망을치게되고 도주하는여자의 뒤에 다시 총한방을쏘아 복부에관통상을 입혔고 세번째 총알은 목에관통상을 입혔으며 경찰에서는 그여자가 소지품을 가지고 있지않았으며 나들이옷을입지 않고 집에서입던것같은옷을 그대로 입고있었다는점등으로 미루어 치정살인이 아닌가 추측하고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아직여자의신원을 확인하지못하고있는데 키는 五척二촌가량되고 옷색「나이론」저고리에 곤색자연 나바지를 입었으며 흰고무신에 흰광목버선을 신었을뿐 아무런 증명서도 가지고있지않았다한다

色鉛筆

◇…「어머니날」행사를 계획하고 이의실시를 각지방에 시달한 문교부에서는 그행사의 하나로서 어머니가 살아 계신분은빨간「카네이숀」, 어머니가 가셔서 안계신 분은 흰「카네이숀」을 가슴에 달라고 지시했었다

◇…그래서 어머니날이되자 이행사를 협조하고있는 보건사회부 직원은 대개가「카네이숀」을 가슴에 달았으나 문교부직원은 동행사를 주관하고있는 문화국 직원조차 한사람도 달고있지않은가하면 중앙에서 三十명의어머니를 표창하겠다고한 문교부 당국에서는 이날까지도 그三十명의 현모양처가 누구누구인지모를 어리둥절…

◇…일찍기 계획해서 일찌기 시달하여 각지방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할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같은데서는 八일상오까지 보고를받지못하고 있다는것이니 우수한(?) 집무태도에 놀랄수밖에

우리代表招

國際農業教育會서

八일 문교부에서는 서서(瑞西)「쥬릿히」에있는 국제농업전문가연맹으로부터 오는九월十四일부터 동 二十七일까지 四일간 이태리「로마」에서개최될 제五차 국제농업교육회의에 대표를 참가케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한다 그런데 동회의에는 농업전문가들이 모이어 농업문제에대한 각국의실정과 상호협조방안이 논의될것이라고하며 당국에서는 동 회의에 참가할대표자를 선정중에있다고한다

어린이날에붙임

―浮浪兒들의善導에對한提言―

(三)

田 麟

(四) 부랑아취급의 반성과 새로운방법

첫째 사변후 부랑아문제에 관심을가지고 이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것은 당국자나 일반사회 유지가 아니었고 전쟁하는「유엔」군에 의해서 시작된사실을 특별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국가의운명은 전혀 소년들의 장성여하에 있겠는데 아무리 당국의 예산이나 궁핍한 사회의 경제실정은 동정할만하다해도 그 관심과 구호대책을 우리나라자신이 아닌 외군에게 맡겼다는사실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반성해야할것이다 일제하의 폭정하에서도 이나라의 애국자들은 소년지도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에 전력한 사실을 기억할것이다 사태의 위급이 있을수록 침착한 그리고 근시안이 아닌 원시안적 국가장래에 배려하여야할것이다 여기에 제부터라도 이나라의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해야하겠다는 앞으로의 결의가 있어야하겠다 둘째로는 외군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자선가아닌 자선가에 의하여 원조하는 본연의 충실한 심부름도 못하였다는 점이나 이면으로 해서 자의 전반으로부터의 비난과 아울러 순전한 동심의세계에 불신의 악벽을 길러준 폐 또 반성해야겠으며 재력파 몸과 마음뿐아니다 꺾여진 어린이나라의 꽃송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수없을바엔 차라리 자선가아닌 자선가는 없는것만 못한것이다 이것은 기존하는 단체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반성과 양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결의가 있어야 할것을 주장한다 셋째는 보호기관에대한 비난을 일삼고 국가 시책을 비난하는 일반사회동포들에대한 항의를 한다 격증하는 부랑아문제는 일부기관이나 당국에 일임하여 해결될 문제가아니다 국가전체가 책임을질 문제이다 일부기관의 부당처사를 비난만하고「유엔」군의 원조가없었던들 어떠한 결과가 오늘날 발생하였을것인가? 보호기관에서 부당사실이있고 기만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원조를 계속하였던 사실을 기억할것이다 부랑아보호에는 책임을 국민전체가 져야하고 비난할사람도 받을사람도 있을수 없는것이다 비난보다는 이제「유엔」군의 철수로급격히 감소된 원조로 파산일보전의 국가보호기관에대한 책임을 국민각자가 지고 국민의 반성에의한 새로운운동과 새로운형태의 구호사업이 전개될것을 기대한다

(1) 집단수용과 교육

부랑아의 실정에서도 약술한대로 원조와 보호만이 관계의 집단의필요는 긴요하다 그 제一의 방법으로 보든만이 소년들의집단수용과 동시에 한편왕초의 퇴치를 단행할것이다 그러나 이부랑아들이 제까지 질서를 유지하고있는기관에서는 이 소년들을 받으려 하지않는다 이것은 경비와 시설의 부족에 기인이 있겠지만 이미 보호하고 있는 소년들과 수三년이상씩 갖은악에물든 소년들을 동시에 수용함으로 일어나는 곤난성에 있다고본다 따라서 기왕의 인원도 수용하기에 벅찬 고아원에 다수의 소년을 수용하게 하기에는 벅찬 부담이된다 따라서 이방면에 관심을 갖는 인사와 당국의 협조로써 새로운 형태로서의 집단수용의방도가 긴요하다 이의 좋은 예로는 四년전부터 서울직업소년학교를 중심한 수개처에서 집단수용과 지도하고 있는것으로 이러한 형태를 전국五四개처(경찰이 경영 八八년十二월치안국집계) 직업소년학교에서 실시한다면 좋은 성과도 있을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담당한 서울직업소년학교는 이의 시금석이 된것이다 또 갖은역경속에서 불타는 향학열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무료수업은 전국 五四개소 에서 九천六백七十五명으로 이기구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집단수용과 교육에있어서 문제되는것은 다음의제점이다 (계속)

不良輩들은 거의가짜學生

八일 문교부에는 치안당국으로부터 「요즈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지의 고심지에는 엄연히 학교 교모를 착용하고 학생증을 가진자들이 양민에게 폭행을하고 또는 물품을 강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는데 이들을 취체해보면 대부분이 가짜학생으로서 학생증을 一천八백환부터 二천五백환으로 매수하여 정규학생의 행세를하고 있으니 이에대한 철저한 단속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통보되었다

尋人
住所 서울市城東區杏堂洞山三六 종윤만
姓名「男」鄭胤萬 當五歲
五月三日上午九時出家
衣服 上:붉은홍고리 下:灰色쓰봉 內衣不着
신발 붉은고무신
얼굴 둥글고 눈이크고 머리삭
눈섭이 검고 승미가 녹고 面
上에 말은버짐이많음
右者의居處를通知하여주시는분에게는厚謝하겠읍니다
連絡處 城東區下往十里洞六六의八 鄭元載

電話賣買
中區茶洞壹壹〇番地 乙支路入口東大門行電車乘場越便
新興社
電③一五一五

學生募集(晝夜)
一、募集人員 中學校 一三〇名 商業高等學校 一八〇名
一、特典 入學金僅少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五街一三三
大京中學校
大京商業高等學校
電②六〇七九 師大附高건너便골목三〇米

男女 速記士養成
◎文化線의最高技術인 速記學術을배우라!
◎靑年들이여 入隊前에 速記學術을배우라!
募集期間…六個月間
募集期限…五月二十二日限(汽車通學券發給함)
◎速記士資格證授與 ◎就職斡旋 ◎獎學金授與
◎接受處…서울市鍾路區寬勳洞一六九(中央女高옆) 鍾路區에서安國洞네거리側으로約三百米地點
◎韓國速記高等技術學館

巢礎 種蜂
養蜂學 故趙相烈 趙英泰 共著
先進三十個國最新의養蜂科學 三十五星霜의自驗及研究를學術的으로綜合한 全書 美國農務省文庫에收錄된 養蜂界의最高學敎材 最適初心專門家의至寶 (六五〇面圖解四三五個) 定價一五〇〇圜 送料百圜
서울特別市西大門區北阿峴洞一의一六三(北阿峴洞會六統七班)
朝鮮蜜蜂園 振替서울二五五三番
市內連絡處 鍾路네거리文一堂 鄭氏方
來園案內所 北阿峴동안派出所앞 上水道揚水場 安氏方
深房巢礎 蜂兒腐敗病特殊防疫製品 黃金色純蠟原料 巢房及至適한底面角 巢礎蠟絶對不伸·無變質 三十五年經驗 品質至廉特價良品 地方大注文歡迎

購買入札公告
一、入札品名及數量 配電盤用儀器(新品) 五〇/五 A九號外三點
一、入札期日 檀紀四二八九年五月十七日上午十時三十分
一、入札場所 當社用度課
一、納品場所 當社서울西小門倉庫
一、納品期日 契約後七日
一、入札保證金 入札金額의一割에該當하는市內銀行發行保證手票或은現金
一、入札者資格 財政法施行令第八十七條에依한條件具備者
一、入札申請締切 檀紀四二八九年五月十六日上午十時
一、其他詳細한것은 當社用度課에問議하시압
右公告함
檀紀四二八九年五月七日
南鮮電氣株式會社

傳統을가진
胃腸藥
그레오소-트와漢藥製劑
정충환
구레오소-트와漢藥製劑 抗生物質 常用은 人體에 抵抗力을 養成할것입니다 이러한 害가없고 確實한 效力의傳統을가진『정충환』을 安心하고 連用하십시오
製造元
太陽製藥工業株式會社

省禮言
本大學敎授醫學博士盧亨鎭先生美國보스톤市하버드大學病院에入院加療中不幸히四月二十五日別世하였음으로遺骸는美國에있는同窓諸賢의加護로써安葬되었으나同人의平素의遺德을追慕하고저左記와같이追悼會를開催하여冥福을빌고저하오니萬障枉臨하시기를仰望하나이다
敬具
記
一、日時 檀紀四二八九年五月十二日下午二時
一、場所 本大學講堂(에비슨館)
檀紀四二八九年五月八日
世富蘭偲醫科大學長 金鳴善

젊은이의마음을 흠벅 적시는 눈물과 우슴과 愛情의 환타-지!
모이라·샤-라- 피어·앤제리- 레스리·카론 제-므스·매슨 카크·다그라스 파-리·그렌쟈- 6大스타-競演
빈센트·미네리+칼후리·드라인할트監督 總天然色
M·G·M's ★東洋映畫配給★
絶讚上映中 堂堂第二週突入
上映時間表
1回 10.00—12.50
2回 1.00—3.00
3回 3.10—5.10
4回 5.20—8.10
5回 8.20—10.20

總天然色 M·G·M作
사랑과肉体·不幸한어떤女性의끝없는欲情의불길!
리챠-드·브룩스 감독
라나·타나 칼로스·톰프슨·피어·앤젤리 主演
早朝割引·午前十時開場
8日부터 東和극장